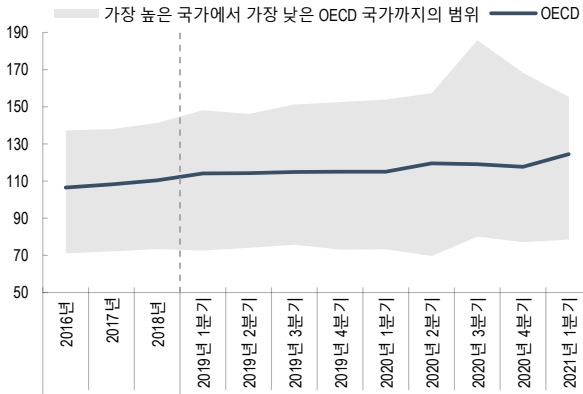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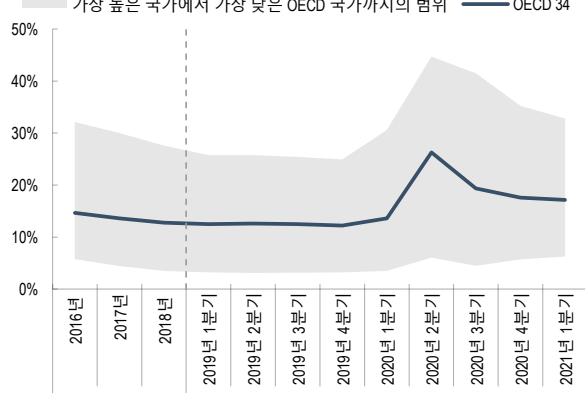
물질적 웰빙

1인당 가계 가처분 소득, 지수(2007=100)



참고: 2019년 4분기와 2020년 4분기 사이 OECD 평균 1인당 가구 가처분 소득은 누적 2% 증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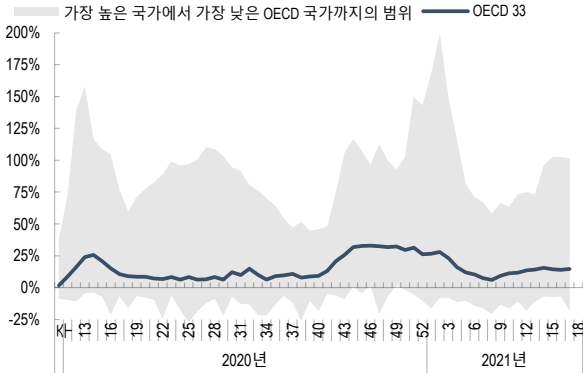
노동력 저활용률



주: 노동력 저활용률은 실업자, 주변부근로자, 불완전취업자를 포함하며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됨.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OECD 34개국의 노동력 저활용률이 평균 12%에서 18%로 증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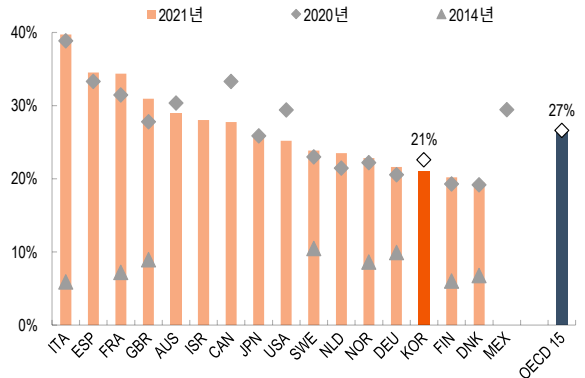
삶의 질

초과 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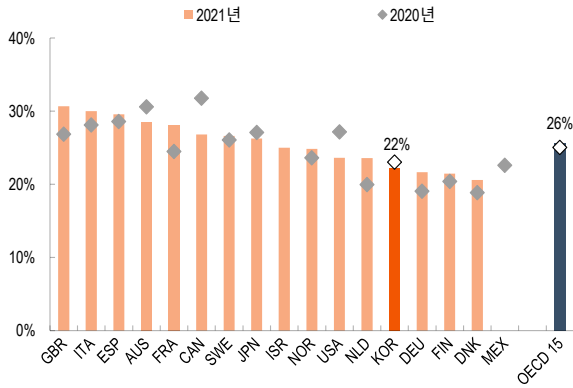
참고: 초과 사망률은 2015-2019년 평균과 비교하여 2020년 11주차부터 2021년 19주차까지 총 사망자 수의 백분율 변화로 표시됩니다.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OECD 33개국의 초과 사망률은 평균 16%였습니다.

우울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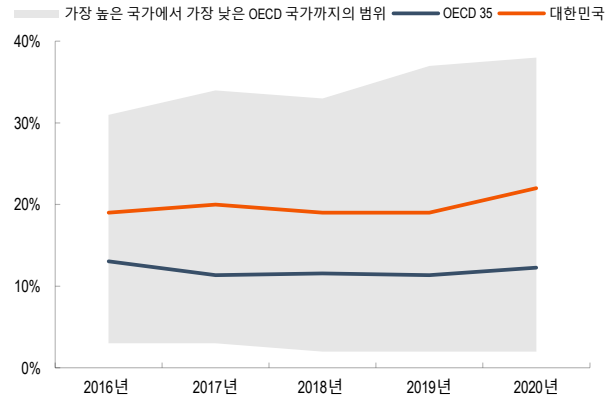
참고: 우울증 위험은 PHQ-4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됩니다.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우울증 위험인구 비율은 각각 23%와 21%였으며 OECD 15개국의 경우 두 해 모두 평균 27%였습니다. 2014년 데이터는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후 연도와 엄격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.

불안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



참고: 불안의 위험은 PHQ-4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됩니다. 2020년과 2021년에 한국의 불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23%와 22%였고 OECD 15개국의 경우 평균 25%와 26%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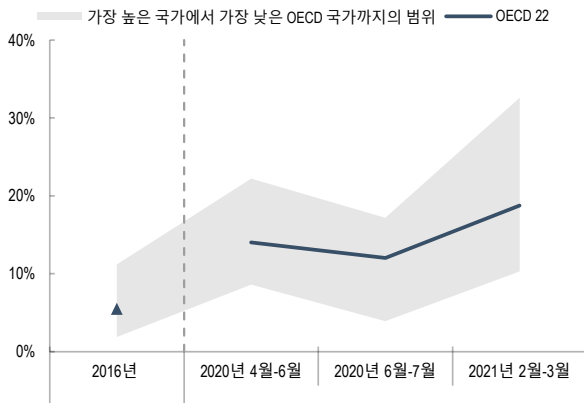
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의 비율



참고: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는 0-10 Cantril 사다리 척도에서 4 이하로 응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.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평균 19%에서 22%로, OECD 35개국의 경우 평균 11%에서 12%로 증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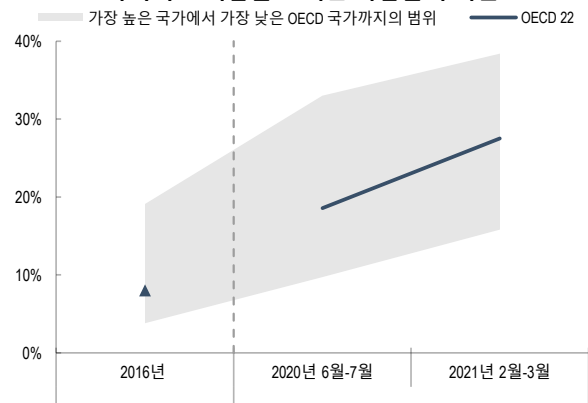
사회 관계

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



참고: 데이터는 지난 2주 동안 "가장 많이" 또는 "항상"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. 2020년 4월-6월과 2021년 2월-3월에는 OECD 22의 평균이 각각 14%와 19%였습니다. 2016년 OECD 22개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평균 6%였지만 이 값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후기와 엄밀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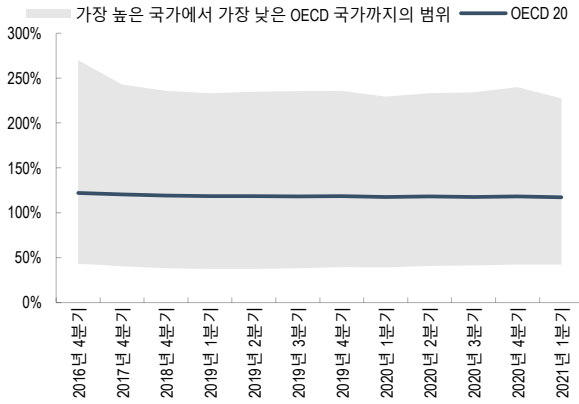
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



참고: 데이터는 "나는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"이라는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력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. 2020년 6월-7월과 2021년 2월-3월에는 OECD 22의 평균이 각각 19%와 27%였습니다. 2016년 OECD 22개국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평균 8%였지만 이 값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후기와 엄밀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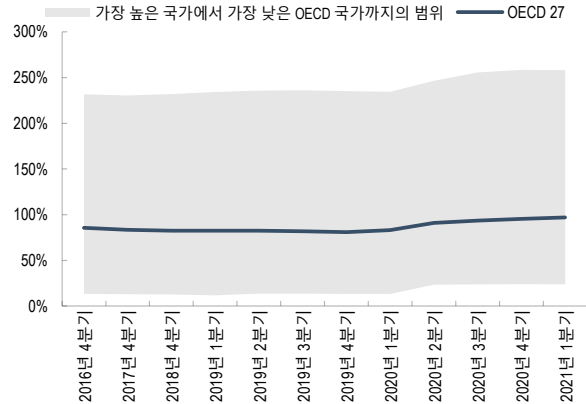
지속 가능성

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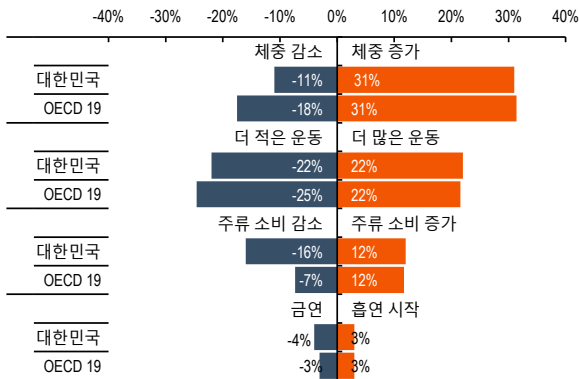
참고: 2019년 4분기와 2020년 4분기 사이에 OECD 20개국의 가계 부채는 평균 가처분 소득의 119%에서 118%로 감소했습니다.

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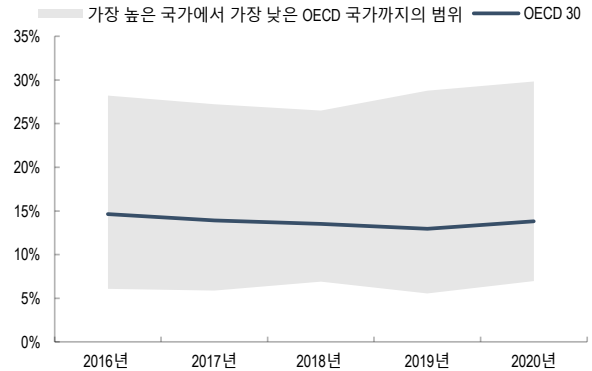
참고: 2019년 4분기와 2020년 4분기 사이에 OECD 27개국의 정부 총부채는 평균적으로 GDP의 81%에서 95%로 증가했습니다.

건강증진행동의 변화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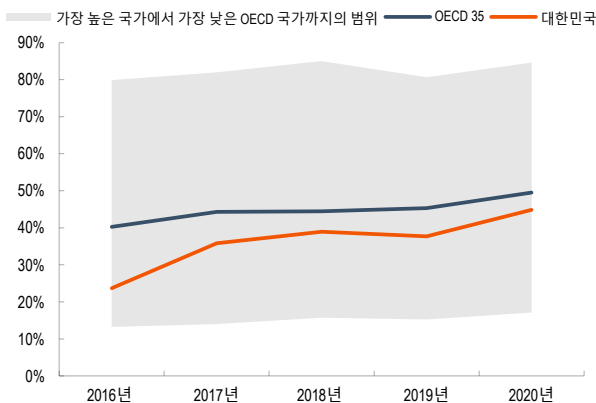
참고: 데이터는 대유행 시작 이후 2020년 10월-11월까지 건강증진행동의 변화를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.

니트족(NEET: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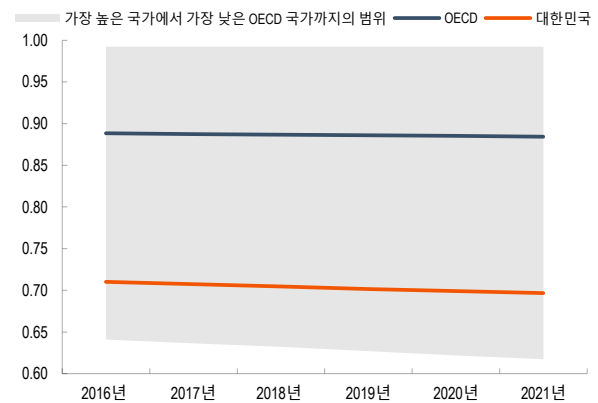
참고: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니트족의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%에서 14%로 증가했습니다.

정부신뢰도



참고: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 "예"라고 답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국의 경우 38%에서 45%로, OECD 35개국의 경우 평균 45%에서 49%로 증가했습니다.

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지수



참고: Red List Index 값 0은 멸종된 모든 종을 나타내고 값 1.0은 "최소 관심 대상"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모든 항목을 나타냅니다.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멸종위기종 레드리스트 지수는 한국의 경우 0.70으로 안정적이었고 OECD 평균은 0.89에서 0.88로 감소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

전체 OECD(2021) 코로나-19와 웰빙: 전염병 시대의 삶 간행물에 액세스: www.oecd.org/wise/covid-19-and-well-being-1e1ecb53-en.htm.

이 국가 프로필에 사용된 데이터와 지표 정의, 출처 및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으십시오: www.oecd.org/wise/COVID-19-well-being-country-notes-data.xlsx.

모든 38개 OECD 국가보다 적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, OECD 평균 계산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그림과 주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(예: OECD 33).

이 메모의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, OECD 평균만 표시됩니다.